


# 이력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천은진			
			[영문] EunJin Cheon	생년월일	1995.09.13. (만 27세)	
		주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47길 74			
		휴대폰	010-3149-6130	이메일	from.ozdesign@gmail.com	

학 력 사 항	학 교 명	전 공	기 간	소재지	졸업구분	학점
	한국관광대학	호텔제과제빵과	2013.03 ~ 2015.02	이천	졸업	3.7 / 4.5

자 격 사 항	어 학 및 자 격 증	발급기관명	취득연월
	웹디자인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04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2018.09
	GTQ 포토샵 1급	한국생산성본부	2018.07

경 력 사 항	근 무 처	기 간	직 위	담 당 업 무
	디자인쏘다	2022.03~2023.05	대리	기존 클라이언트 관리 및 신규 홈페이지 구축 (시안 작업, 코딩)
	롯데리아 궁전라벤더점	2020.07 ~ 2021.10	메이트	조리 및 고객 응대
	(주)동원테크	2017.02 ~ 2017.07	사원	경리 업무 및 일반 사무

기 술 능 력	종 류	상.중.하	종 류	상.중.하
	HTML5	상	포토샵	상
	CSS3	상	일러스트레이터	중
	jQuery	중	프리미어 프로	중
	그누보드	상	Figma	중

교 육 사 항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내용
	반응형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디지털 인재 양성 과정	2021.11 ~ 2022.03	더조은컴퓨터아트학원	웹 퍼블리싱

# 자기소개서

## 성장 과정

### “시도하는 즐거움”

어린 시절부터 여가 시간이 생기면 무조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는 아이였던 저는 개인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카페 회원들이 올린 게시글에 알록달록 배치되어 있는 손글씨와 축전을 보고 '나도 저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래픽 툴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포토샵 카페에 가입해 여러 강좌를 보고 저만의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서 제가 만든 콘텐츠를 독자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웹 디자인 분야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웹 에디터 사용법과 간단한 코드를 익히고 레이아웃과 배색을 고민하면서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성격의 장단점

### “부지런한 베프이”

MBTI 검사에서는 제 성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이상향을 꿈꾸는 데 게으름 피우는 법이 없으며,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행한다.'

디자인은 같이 일하는 팀 동료,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기간 안에 맡은 일을 실수 없이 마무리하는 것, 그 바탕은 성실함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제 성격이 누군가에게는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만, 꼼꼼한 확인과 세심한 디테일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한몫 톡톡히 해내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비롯된 섬세함으로 업무에서는 든든하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작업자로, 개인으로는 맡은 프로젝트는 달라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동료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 경험 및 경력

### “씨앗을 심는 정원사”

웹 에이전시에서 근무한 지난 1년 동안, 맡은 프로젝트를 각각 하나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며 심었습니다. 씨앗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레퍼런스를 찾고, 고민하고, 먼저 정원을 가꾼 다른 분들에게 피드백을 구하며 사용자에게 조금 더 나은 디자인, 편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키워 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과 기한 내에 사이트를 구축해야 하는 실무자 사이에서 의견이 나뉠 때 소통하며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을 배우고, 다른 동료가 프로젝트의 중간에 투입되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간단한 업무 가이드를 만들어 회사와 작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시도했습니다.

## 입사 후 포부

### “열정의 마라토너”

모든 일은 열정에서 비롯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웹 디자인을 시작한 만큼 입사 후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계속 공부하며 안주하지 않는 마음과,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모든 일이 자양분이 된다는 믿음의 자세로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마라토너가 페이스 조절을 하며 포기하지 않고 긴 거리를 달리는 것처럼, 저 또한 웹 디자이너라는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한 만큼 꾸준히 달려 나가겠습니다.